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격주간 뉴스레터 –

해당 분야의 주요 사건

전 세계 우편 서비스

No.7

2026년 15번째 2주 기간 (2026년 8월 1일 – 8월 15일)

미국

- 제한적 지침에 대한 법원의 제동: 2026년 8월 11일, 보스턴 연방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와 미국 우편공사(USPS)가 우편 투표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편 투표 시스템을 수호하는 것은 해당 부문의 고용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인 만큼, 노동조합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 우체국 폐쇄 및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한 대응: 8월 7일 열린 USPS 이사회 회의에서 노동조합은 414개 이상의 우체국을 '운영 중단 목록'에 계속 포함하고 있는 우편공사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우편노조(APWU)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시골 지역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은밀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수단이라고 규탄해 왔습니다.

콜롬비아

- 비상 대응 활동: 2026년 8월 10일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와 도로망 차단이 발생하여 18만 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겨남에 따라, 우편 배송망은 비상 운영 지침에 따라 가동되었습니다. 우편 종사자와 노조는 필수 소포 및 인도적 지원 물품의 배송을 최우선으로 처리했습니다. 노동 단체들은 피해 지역 내 전통적인 은행 지점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공식 우편 사업자의 광범위한 물리적 네트워크와 우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피해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긴급 송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안정성 확보 요구: 콜롬비아 우편 부문은 연초에 건조한 물동량을 기록했으나, 노조 대표들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정 투입을 통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전국 단위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보장하는 한편, 5천 명 이상의 직접 및 간접 고용 인력의 복지와 안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칠레

- 노동 관련 실무 그룹 활동 모니터링: 고정비 절감 및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수개월 전 6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가 단행된 이후, 칠레 우편공사(CorreosChile) 노조 연맹은 사측과 노동부가 사안별 재검토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자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 지점 운영 방식 전환: 노조는 전국 소규모 지역사회의 기존 지점을 외부 '대리점'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우편 배송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요 분류 센터에 실물 우편물이 적체되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 소포 배송 과정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루

- 법안 관련 노조 동향: 국영 우편 기업인 세르포스트(Serpost)의 전면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부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전국 세르포스트 노조(Sintraserpost)는 이에 대응한 향후 노조 차원의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마 및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암묵적 민영화'나 필수 서비스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인프라 및 전자상거래 수요: 내부 노동 현안과 관련하여, 우편 및 집배 업무 종사자들은 정부의 공격적인 물류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적 자원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아시아발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와 찬카이(Chancay) 및 카야오(Callao) 항구를 경유하는 신규 해상 항로 개설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140만 건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 해고 상황 모니터링: UNI 글로벌 유니온(UNI Global Union) 산하 덴마크 노조인 3F는 국영 우편 사업자인 포스트노드(PostNord)가 일반 우편 배달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용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노조는 전통적인 우편 부문에서 약 1,500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민간 부문의 문제점 비판: 우편 시장이 DAO와 같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됨에 따라, 3F 노조는 8월 초 새로운 민간 배송망 내에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실효성 있는 단체협약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배달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 ZUZP(폴란드 우편 노동조합) 협상: 기존 단체협약(ZUZP)의 무효화로 인해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연중 재개된 실무 논의를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통해 8월 들어 본격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현재 노조는 새로운 실무 경영진과 협력하여, 급여 조정이 추가적인 대규모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공식적인 보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체불금 지급 승인:** 2026년 8월 12일, 폴란드 우정공사(Poczta Polska) 이사회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미지급 성과급(2025년 3월분) 및 누적 근속 수당의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사측은 늦어도 2026년 8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약 33,7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 **우체국 관련 제안:** 2026년 8월 14일, 러시아 우정(Poczta Rossii) 경영진은 우편 비밀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공식 제안서를 정부 규제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은 독립 계약자(자영업자)가 국영 우체국 내에서 직접 소포 수령 지점(PVZ)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지점의 심각한 운영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자리의 민간 위탁을 조장하고 정규직 급여 생활자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풀뿌리 단체와 독립 위원회 등은 이 계획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 의무화:** 2026년 8월 1일부터 정부 포털 '고수슬루기(Gosuslugi)' 또는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시민에게 종이 형태의 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자동 발송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 형식(PDF)으로의 이러한 강제 전환은 우편 집배원이 처리하는 전통적인 우편물 물량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정 당국은 배송 경로를 재편하고 잔류 인력을 디지털화된 상업용 소포 배송 업무에 집중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 **소모적 경쟁 억제:** 8월 초, 물류 및 택배 부문의 노동조합 위원회들은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발맞춰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이른바 '내권(neijuan, 과도한 내부 소모적 경쟁)'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택배 업체 간의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 배송 인력의 수익이 감소하고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던 현상을 일컫습니다.
- **확대 목표:** 중국 국가우정국과 업계 협회는 새로운 부문별 전략의 실행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문의 연간 물동량은 2030년까지 2,900억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성장이 임금 조정 없는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 **대규모 배송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영 운영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 8월 14일과 18일을 '택배 없는 날'로 공식 지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록적인 여름 폭염과 높은 배송 수요 속에서 택배 기사들이 겪는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정부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 **자율주행 차량:** 우정사업본부는 'ラスト마일(최종 배송 단계)' 배송을 위해 소형 무인 전기차와 배송 로봇의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기술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로봇이 사람 택배 기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택배 물품을 들어 올리는 등의 보조적인 역할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카메룬

- **우편 물류 흐름에 대한 위협:** Campost(카메룬 우정공사) 내 노조는 이달 하반기(2026년 8월 24일) 시작될 예정인 도로 운송 협회들의 무기한 총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운송업체들은 열악한 국도 상태와 도로변에서의 부당한 단속 관행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편 노조는 주요 운송로가 차단될 경우, 공급망은 물론 내륙 지역으로의 우편물 및 소포 배송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장비 도입 입찰:** 내부적으로는 근로자 및 노조 대표들이 Campost의 2026 회계연도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창구 현대화를 위해 추진했던 신규 전자 결제 단말기(EPT) 400대 도입 입찰이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조는 해당 예산을 신속히 재배정하여 외곽 농촌 지역 우체국의 물류 장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USPS, LaRepublica.CO, Fitch Ratings, La Noticia Perú, www.abc.com.py, Strefa Biznesu, Kyiv Post, YouTube-ShanghaiEye, Evrim Ağacı, Investir au Cameroun



작성자: ANGEL BARRIOS CUEVAS

행정 지원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